

몬스타엑스 월드투어 ... 25일부터 미국 공연

그룹 몬스타엑스가 아시아에 이어 유럽과 북남미에서 월드투어의 열기를 이어간다.

소속사에 따르면 몬스타엑스는 지난 29일 열린 스페인 마드리드 공연을 시작으로 7월 3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AFAS 라이브(AFAS Live), 6일 프랑스 파리 라센느 뮤지컬(La Seine Musicale), 9일 영국 런던 SSE 아레나 웹블리(The SSE Arena, Wembley), 13일 독일 베를린 메르세데스-벤츠 아레나(Mercedes-Benz Arena)에서 각각 공연을 꾸민다.

19일부터는 본격적인 북·남미 공연을 이어간다. 19일 브라질 상파울루 에스파소 다스 아메리카스(Espaço Das Américas), 21일 멕시코 멕시코시티 테아트르 메트로폴리탄(Teatro Metropolitan)에서 남미 공연을 선보이고, 25일부터 미국 댈러스 버라이어티 씨어터(Verizon Theatre), 27일 휴스턴 스마트 파이낸셜 센터(Smart Financial Centre at Sugar Land), 30일 애



틀랜타 폭스 씨어터(Fox Theatre), 8월 3일 뉴욕 홀루 씨어터(Hulu Theater at Madison Square Garden), 6일 시카고 로즈몬트 씨어터(Rosemont Theatre), 10일 로스앤젤레스 스테이플스 센터(STAPLES Center)까지 미국 전역을 누빈다.

앞서 몬스타엑스는 지난 4월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태국 방콕과 호주 시드니, 멜버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월드투어를 성공적으로 펼치며 전세계 팬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태국에서는 약 100여 명의 취재진들이 기자회견에 모여 현지 인기를 실감케 했고, 월드투어 첫 무대인 호주에서는 호주 팬들이 큰 환호와 관심으로 몬스타엑스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전하기도 했다.

전세계를 누비며 화려한 글로벌 스타로 거듭난 몬스타엑스는 오직 월드투어에서만 볼 수 있는 다채로운 수록곡 무대부터 유닛들의 독보적인 매력을 담은 무대로 공연장을 찾은 팬들의 환호에 부응하고 있다.

갯세븐, NBC '투데이 쇼' 출연



그룹 갯세븐이 미국 NBC 토크쇼 '투데이 쇼' (TODAY SHOW)에 출연해 신곡 '이클립스' (ECLIPSE) 영어 버전을 선보였다. 월드투어에 나선 이들은 지난 26일 오전 10시 '투데이 쇼' 에서 이 프로그램을 위해 준비한 영어 버전 '이클립스' 무대를 펼쳐 스튜디오를 찾은 팬들의 환호를 받았다.

진행자는 갯세븐을 "트위터, 유튜브 등 각종 SNS에서 탄탄한 팬덤이 있는 글로벌 센세이션 그룹" 이

라고 소개했다. 또 이들의 활약상을 영상으로 보여주고는 해당 프로그램의 K팝 그룹 첫 출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오전 10시 무대를 보기 위해 팬들이 어제저녁부터 기다리고 있더라" 고 놀라워하며 팬들이 어떤 의미인지 묻기도 했다. 멤버 마크는 "팬들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다. 팬들이 없다면 우리가 '투데이 쇼' 에 올 수도 없었을 것" 이라고 답했다.

멤버들은 두 진행자에게 손을 머리 위로 뻗어 함께 맞잡는 포인트 안무를 알려주기도 했다.

방송 직후 트위터 월드와이드 트렌드 랭킹에는 해시태그 '#GOT7onTodayShow' (#갯세븐투데이쇼 출연)가 1위를 기록했다.

지난 15~16일 서울에서 월드투어 포문을 연 갯세븐은 지난 27일 미국 뉴어크를 시작으로 30일 캐나다 토론토, 7월 3일 댈러스, 6일 로스앤젤레스, 10일 오클랜드, 13일 멕시코 멕시코시티, 16일 칠레 산티아고 등 북남미 공연을 펼친다.

"'기생충' 아카데미상 레이스 강력한 경쟁작"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Parasite)이 내년 초 아카데미상(오스카) 작품상 레이스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작 중 하나로 손꼽혔다.

지난 25일 할리우드 연예매체 '버라이어티' 는 내년 1월 2~7일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의 후보자 선정(노미네이션) 투표가 진행되는 2020 오스카에서 상반기 돋보이는 작품 중 하나로 한국영화 사상 최초로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기생충' 을 들었다.

올해 상반기 출품 작품 중 선댄스영화제에서 극찬을 받은 '더 리포트' (The Report), 칸에서 '기생충' 과 경합한 '페인 앤 글로리' (Pain and Glory), 엘튼 존을 스크린에 옮겨놓은 '로켓맨' (Rocketman) 등이 '기생충' 의 경쟁작으로 꼽혔다.

그러나 최근 개봉한 '토이 스토리 4' 를 비롯해 넷플릭스 영화 '아이리시 맨' (The Irishman), 그레타 거윅의 '리틀 위민' (Little Women), 르네 젤위거의 '주디' (Judy) 등 하반기 개봉작들도 지켜봐야 한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1270호 숫자퍼즐 정답									
9	2	4	1	3	6	5	8	7	
1	3	5	7	4	8	2	6	9	
6	7	8	9	2	5	1	3	4	
4	6	3	2	7	1	8	9	5	
5	9	7	8	6	4	3	1	2	
8	1	2	5	9	3	7	4	6	
2	4	1	6	8	7	9	5	3	
7	5	6	3	1	9	4	2	8	
3	8	9	4	5	2	6	7	1	

종교 무관
주7일 예약상담

남이 망한 자리에서 성공할 팔자(八字)

☎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몇 년 전에 어떤 50대의 여인이 필자의 사무실에 방문한 것이다. 필자가 그 여인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보면서 건넌 이야기는 "부인께서 타고난 사주팔자가 그래도 먹을 복을 타고 나기는 했지만 남편복이 박한 팔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고난 그릇이 어차피 남의 집에서 직장 생활을 하기는 어려운 팔자가 되고 자기 사업을 하는 팔자가 되는데 그래도 미식가(美食家)의 재능이 있는 팔자가 되므로 특히 요식업 분야가 잘 맞는 분야가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지금 일식집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라고 말을 한다. 이어서 필자가 건넌 이야기는 "이 사주는 특히 남들이 망한 자리에서 발복(發福)하는 팔자가 됩니다. 경매로 헐값에 인수한 사업이나 또는 남들이 망한 자리에서 자본을 적게 들이고 매상을 높여서 사업체를 되파는 식으로 사업을 해야 합니다."라고 조언해 주니까 그 부인이 하는 말씀이 "그러지 않아도 제가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놀랍습니다."라고 말을 한다. 이어서 필자가 건넌 이야기는 "부인의 사주에 있는 남들이 망한 자리에서 사업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는 특징을 잘 활용해서 지금까지 사업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이 성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배우자 복이 박하다는 점인데...."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 부인이 하는 말씀이 "저도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제 팔자가 남편복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한다. 이어서 필자가 건넌 이야기는 "그래도 지금까지 자식들의 발전과 현달이 따르는 세월을 살아왔다고 할 수 있으니 다행입니다. 누구든지 모든 복(福)을 다 가질 수는 없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라고 조언해 주었던 것이다.

★ 사주명리 · 풍수 · 수맥감정 전문 ★

평생사주 총운	직업, 사업, 재물	궁합, 애정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0%; padding: 2px;">예약 필수</div> <p style="font-size: 1.2em; margin: 0;">714.534.4645</p>
상호, 이름 작명	풍수지리 출장 감정	수맥 탐사 전문	<p style="font-size: 0.8em; margin: 0;">9618 Garden Grove Blvd., #108, Garden Grove, CA 92844</p>

정교한 사주해석 전문

청해역학학술원